

8 교육

강사 처우개선, 등록금 동결·국고지원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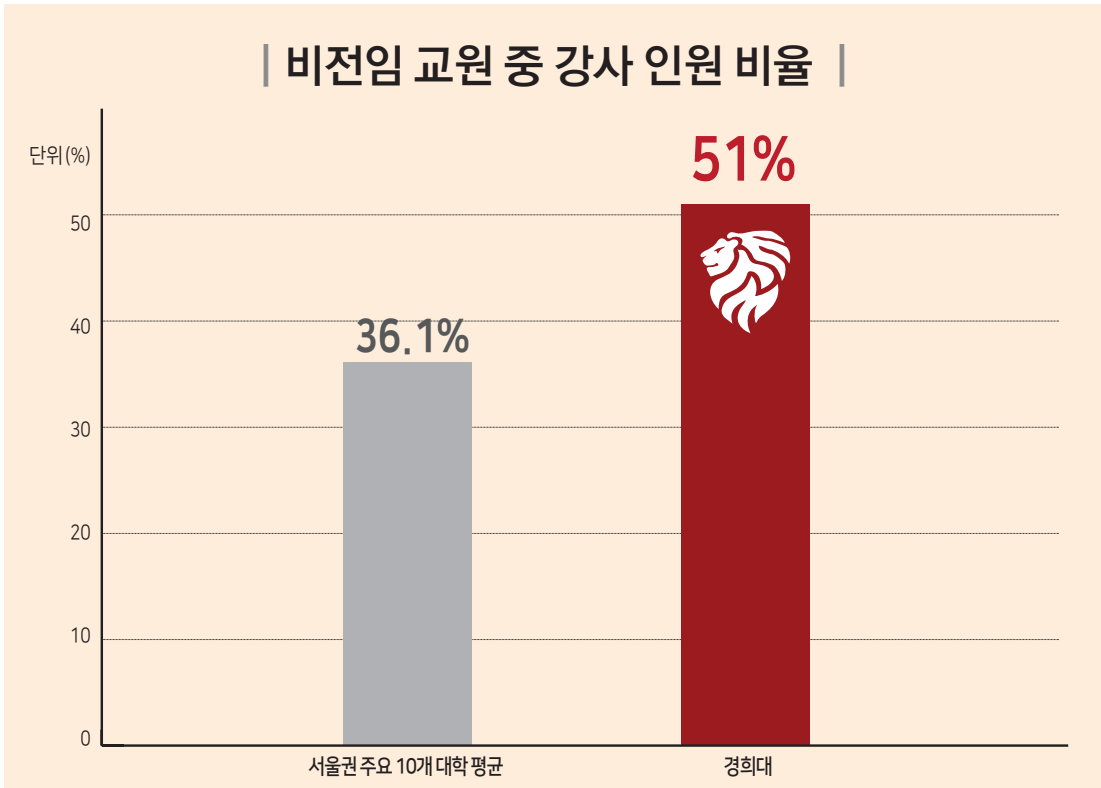
강사 처우개선 - 2회

구성원으로서 인식 개선과 재정 확대 방안 수반돼야

강사 처우 개선은 대학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 학교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강사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와 사립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해당 예산은 강사의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 용도다. 하지만 정부는 ‘강사 처우개선은 사립대 책무’라는 입장으로 작년부터 국고 지원을 중단했다. 우리학교는 연간 약 13억 원 정도의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교비로 부담하고, 향후에도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는 강사 비율이 전체 교원 중 32%로 타 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은 평균 56.9%이며, 우리학교는 59.6%로 평균을 상회한다. 이는 비전임 교원 임용 정책이 타 대학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시로 우리학교는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40.4% 중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27%인데 반해 성균관대는 41.3% 중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10.1%로 매우 낮다. 이는 성균관대에서 초빙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18.4%로 높기 때문이다. 초빙교원은 근무 기간 1년 이상 계약, 매월 정액 보수, 건강보험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비전임 교원 대비 강사 비율 평균은 36.1%인데 반해 우리학교는 51%다. 이는 비전임 교원 임용 정책이 타 대학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진정한 강사 처우 개선은 강사를 대학 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가입,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단과대학 중 강사 수가 가장 많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김진해 부학장은 우리학교 비전임 교원 임용 정책에 “재정적 이유가 제일 크다”며 “비전임 교원 중 처우가 그나마 나은 객원교수는 2년 후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하니, 후마처럼 교육의 연속성이 필요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임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도 강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꼬집었다.

강사 강의료와 적정성, 인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했던

강사 처우 개선 예산같이 실질적인 재정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 임금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기도 하다. 서울권 50개 대학 내 국공립대 평균 강사료는 90200원이지만 사립대 평균 강사료는 52700원 수준이다. 이 중 우리학교 평균 강사료는 11년째 51000원으로 사립대 평균 강사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강사 처우 개선은 강사를 대학 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강사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교육, 예·결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 평의원회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8명의 자격 요건은 ‘교원 중에서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다.

교양 대학의 특성상 그나마 강사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필수과목 교원(강사 포함)들이 워크숍 시간을 가지며 교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마 또한 교육과정 개편 등에서 강사의 참정권은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산팀은 “상당 기간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의과대학 보유) 중 최하위 수준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서도 교육의 질은 유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지속적인 물가인상(전기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법 시행 이후로도 강사 강의료의 적정성과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이나 등록금 인상, 국고보조금 등 재정 확대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대학 강사료 문제 관련 추후 교내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고,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NGHEE BLOSSOM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장학 정보가 넘쳐나는 학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으로 놀러오세요!
2024. 03. 28 ~ 2024. 04. 30.

참여방법

- 경희대 학생지원센터(장학)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다!
- 게시된 장학 정보를 둘러본다!
- 계정 상단의 구글폼 링크를 통해 구글폼을 작성 후 제출한다!

메가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증정! (1500명)

이벤트 종료 후 5월 중 일괄 지급 예정

KHU_JANGHAK_SEOUL

MAGNOLIA HOUSE

경희 후원의집 유치 이벤트

후원의집 이용권 50,000

후원의집 유치하고 선물 받으세요~!

유치해 주신 분께는 유치하신 후원의집 '5만원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상시 운영

후원의집 유치 과정

- 단골가게에 후원의집의 가치와 목적을 전달하며 가입을 추천
- 사장님의 의사결정 후, 참여자가 전화 또는 구글폼으로 유치이벤트 신청
- 대외협력처에서 가게 방문 후 후원의집 유치 실행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벤트 참여 QR 신청

QR 코드

이벤트 참여 QR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 02-961-0932~3 ✉ give@khu.ac.kr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108호